

도심하천과 연계된 특화 가로 현황 분석

A Study on the Specialized Street Related to the Urban River

○엄 도 윤* 곽 대 현* 나 윤 성* 남 현 우* 박 준 영* 강 석 진**

Eom, Do-yun, Kwak, Dae-hyeon, Na, Yun-Seong, Nam, Hyeon-Woo, Park, Jun-Young, Kang, Seok-Jin

키워드 : 도심하천, 친수공간, 공공성, 이용자 행태

Keywords : Urban river, Waterfront space, Publicity, User behavior

표1. A-D 구간별 접근성 및 이용행태 분석

	A구역	B구역	C구역	D구역
이용행태	문화 24%(26명)	문화 33%(36명)	문화 0%(0명)	문화 25%(27명)
	휴식 76%(82명)	휴식 50%(54명)	휴식 79%(85명)	휴식 61%(66명)
	운동 0%(0명)	운동 17%(18명)	운동 21%(23명)	운동 14%(15명)

도시의 하천은 단순한 자연 지형이 아닌, 인간의 삶과 밀접하게 연결되는 공간이다. 또한, 하천과 연계된 테마가 있는 특화 가로는 수변공간과 보행공간을 함께 활성화시킬 수 있는 요소가 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경상남도 J시 가좌천을 중심으로 조성된 여가공간(일명, 볼레로 문화거리)의 현황을 분석하고, 정체성 회복과 이용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진행되었다.

연구의 범위는 거점국립대학교에서 시작되는 가좌천(길이 820m, 너비 20~30m)이며, 선행연구 고찰을 통해 도출된 체크리스트로 현황을 조사하고, 사용자 설문조사(총 108명)를 시행하였다.

연구 결과, 가좌천의 수질과 인접한 둔치의 조경수목 관리는 미흡하지만, 가좌천 상부에 위치한 보행로에는 잘 정비된 각종 데크 및 조형물이 설치된 차이가 있었다. 특히, 보행로에서 가좌천으로 내려가는 계단이 곳곳에 설치되어 있었지만 실제로 이용하는 사람들은 확인되지 않았는데 이는 수변공간의 활용성 제약 및 관리의 문제와 연계되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가좌천 상부의 보행로(볼레로 문화거리)를 이용하는 주 이용자(대학생)를 대상으로 한 설문 결과 대부분 보행 중심의 통행로로서만 인식하고 있었다. 주 이용 시간대는 등하교 시간에 집중되었고, 다른 시간대의 이용 및 방문은 상대적으로 적은 특징이 있었다. 해당 공간에서의 이용 행태는 걷기가 64%로 가장 높아, 테마(주제) 공간으로서의 기능은 작동하지 않는 것이 확인되었다. 다만, 가장 접근성이 좋고 시설의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은 구간(A, B, C, D)에 대해서는 단순 보행 이외에 휴식과 운동, 문화 활동이 일부 이루어지는 특징이 있었다. 이들 구간에 설치된 공간 및 시설은 공연장, 벤치, 오픈스페이스 등인데, 주말에는 벼룩시장이나 버스킹 등의 장소로 활용되고 있었다.

한편, 만족도 조사 결과 휴식 공간 부족(29명, 27%)과 야간 활동을 위한 조명 부족(29명, 27%)이 가장 문제가 되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이는 이동과 함께 체류 공간으로 기능하는 데에 한계가 있음을 보여준다.



그림 1. 수변공간 테마에 대한 인식

그 밖에 볼레로 문화거리에 적용된 테마에 대해서는 모르는 비율이 78%(84명)으로 가장 높았고, 존재 여부에 대한 인식부족(무관심)과 차별성 부족, 적합성 부족 등이 문제로 지적되었다.

연구 결과를 종합하면 수변공간과 연계된 특화 가로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연계성이 있는 공간 및 시설물의 설치가 필요하며, 인프라 활용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의 적용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 경상국립대 건축학과 학부 과정

** 경상국립대 건축학과 교수, 공학박사

(Corresponding author : School of Architecture, Gyeongsang National University, cpted@gnu.ac.kr)